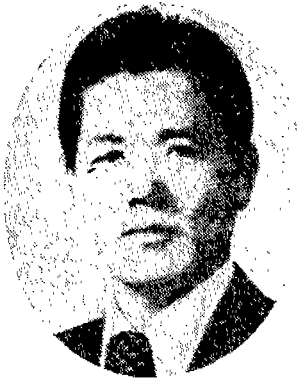


“나를 알고 적을 알면”



社團法人 大韓電氣協會
常任理事 張 炳 琦

最近 몇年來에 情報(Information)에 關한 問題는 거의 우리의 日常生活 밑바닥까지 一般化되어 있고 그것은 産業界의 各 分野, 스포츠 심지어 簡單한 쇼핑에 이르기까지 呼吸을 같이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어두어가지고는 時代의 感覺과 趨勢에 떨어지고 試行錯誤를 거듭하게 되며 모든 競爭에서 敗北을 前提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自明한 事實”을 갖이고 逆說을 하는 것 같지마는 이제 電氣界의 初年兵인 本人으로서 우리 電氣界의 現實을 살펴 볼때에도 우리나라에 電氣가 導入된지 지난 60餘年間に 이러한 “自明한 事實”이 具體化되어 現實化된 事例가 至極히 稀薄하지 않은가 하는 點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 본다면 最近의 에너지危機나 資源問題에 對한 것은 全世界의인 問題로 轉된다 하여도 電力事業을 中心으로 하여 産業用·家庭用電氣機器, 電子機器를 主宗으로 하여 構成되는 電氣關聯産業이 相互의 紐帶와 協調속에서 橫的 連結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왔다는 點이다.

特定 製品의 生産貨績이나 需要를 평가해보기 爲해서 國內의 諸 團體, 調查機關을 일일이 踏査해야 하고 그래도 시원하게 確實한 統計나 情報를 入手하기가 困難하고 極히 最近까지도 海外에서 緊急히 入手되는 國際入札情報는 國內의 現實과는 아주 동 떨어진 것이며, 技術의 導入現況을 보면 重複 또는 再導入이 許多히 露呈되고 있다. 더구나 電氣關聯産業과 같이 複雜하고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分野에 이를 總轄할 만한 機構나 政策의인 配慮나, 資金의 支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 指摘될 수 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꼭 이긴다”는 것이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나를 알지 못하고 相對 도 모르며 그 위에다가 이러한 非合理性을 是正할 만한 움직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電氣關係情報의 體系化는 앞으로 80年代까지 우리의 投資가 얼마나 크며, 量的 肥大가 어느 정도 인가를 생각하고 좀 더 長期的인 眼目을 念頭에 둔다면 좀 더 實感이 난다.

40餘萬kw의 發電設備를 갖고 無制限送電을 自祝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餘年前의 일이고 現在의 450餘萬kw의 發電設備가 不過 5~6年 後에 1,000萬kw가 된다면 그 天文學的인 投資속에서 電氣關聯産業은 그야말로 飛躍的인 成長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이러한 過程(過程)을 거치기 爲해서는 좀 더 關係情報의 體系化로 이에 對備하여야 하지 않을까.....

地球上의 化石에너지源(現存)이 無盡藏하지 않을 진데 좀더 長期的인 眼目의 에너지 政策이 要求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平素에 어느 機關, 團體, 企業, 個人이 神經을 쓰기에는 當場에 그렇게 時急하지 않고 너무 金이 들며, 作業이 힘든 情報의 體系化를 어느 特定機構에 一任하여 育成하고 키우는 것이 바로 더 複雜해지고 競爭이 熾烈해질 앞날을 爲해 對備하는 길이 아닐까 生覺된다.....

電氣界의 初年兵으로서 앞날의 電氣界를 위한 情報事業의 重要性을 頭書없이 적어 본다.

